



환경모니터링 첨병으로 나선다

최진희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교수

Science People

최진희 박사는 부임한 지는 2년째, 실험실을 갖게 된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신입 교수다. 최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과와 환경대학원을 졸업 후 프랑스 파리 11대학에서 환경독성학을 전공,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.

국제 Free radical 학회 (SFRR)에서 젊은 과학자상과 국제 환경독성 및 화학회 (SETAC)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생체 지표를 이용한 독성물질의 모니터링에 관한 것으로 주로 산화적 손상을 항산화 효소와 DNA 손상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었다.

최 박사는 귀국한 후에 '왜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왔냐'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다고 한다. 왜 미국이 아니냐는 것이다. "건축을 전공한 남편과 함께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제 분야나 건축 분야 모두 유럽이 상당히 앞서 있었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너무 미국에 의존적인 것에 대해 은근히 거부감이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. 따라서 자연히 유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, 또 불어가 재미있었어요." 그러니까 학문적 이유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동기가 함께 결합되어 프랑스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. 최 박사의 얼굴만 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기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.

그러나 동기가 어떠했던 프랑스에서의 유학생생활은 학문적으로나 최 박사 스스로의 인생에 더 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.

생화학적 생체지표 개발에 전념

바이오테크놀로지(BT)를 환경기술(ET)에 응용하는 최 박사의 연구 분야는 학부 전공인 생물학에 석사과정에서부터 전공한 환경 분야를 접목한 것이었다. 기존의 처리공법 위주의 환경 관리에 독성 메커니즘에 기초한 조기 모니터링 기법을 도입,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둔 연구라는 것이다. 현재는 분자, 생화학적 생체지표를 개발해 이를 환경모니터링과 인체 및 생태 위해성 평가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. "우리 사회에서 현재 여성과학자, 더 넓게는 일하는 여성의 위치는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과거와 같은 선입견, 편견, 불평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,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." 세상 난 아들을 둔 엄마로서 그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육아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안타깝기만 하다. 그러면서도 "이공계를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나간다면 여성 과학자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"이라며 밝은 웃음을 짓는 것을 보면 역시 젊은 과학자답다.

생체 지표를 이용한 환경모니터링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싶다는 최 박사는 인터뷰를 끝내며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신입 교수의 실험실에서 불평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. ㉞

글_ 류통은 본지기자 teryu@kofst.or.kr